

우즈베키스탄의 산업현대화 현황과 시사점

1. 산업현대화 추진 개요

□ 우즈베키스탄 정부 5개년 산업현대화 계획 추진

- 2011년 1월 28일 카리모프(Karimov)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5개년에 걸친 산업현대화 프로젝트(2011~15년)에 총 5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함.
- 정부는 산업현대화를 통해 산업생산량이 5년간 6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산업생산의 GDP 대비 비중이 2010년 24% 수준에서 2015년 28%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.
- 정부는 전력, 교통인프라, 금융 등 다양한 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, 2004년 이후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- 우즈베키스탄은 막대한 자원 수출을 기반으로 2004~10년에 연평균 7%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, 낙후된 인프라로 인해 자원 생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전력 및 교통 인프라 관련 산업이 취약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뒤흔어진 것으로 분석됨.

2. 주요 산업별 현대화 추진 내용

가. 전력 산업

□ 전력부문 현대화 48개 프로젝트 추진

- 정부는 2011~15년 중 전력부문 현대화를 위해 총 48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.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전력생산 용량은 현재의 12,320MW 수준에서 14,723MW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
- 정부는 전력부문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총 2,403MW(화력 2,243MW, 수력 160MW)의 발전용량을 제고하고, 1,000Km의 송전선과 2,118MVA(Mega Volt Ampere) 변전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.

□ 에너지 효율성 증대효과 기대

- 우즈베키스탄 전력산업 부문을 총괄하는 국영기업 우즈베크에너지(Uzbekenergo)는 발전설비의 보수 및 현대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를 목적으로 총 37개의 발전소 건설 및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함.

<표 1> 전력부문 주요 프로젝트 내역

프로젝트명	내용
탈리마잔(Talimarjan) 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	- 740~800MW 규모의 2개 복합화력발전소 증설 - 총 투자 예상액: 7.1억 달러(ADB와 JICA 지원예정)
나보이(Navoi) 복합화력발전소 건설	- 476MW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2012년 완료예정 - 스페인과 터키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수주
타슈켄트(Tashkent) 복합화력발전소 건설	- 375MW 규모로 착수되어 2014년 완공 예정 - 슬로바키아와 캐나다 기업의 컨소시엄이 수주
자동전력소비량 측정기 설치	- 전력소비량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자동전력소비량 측정기를 설치 - 송전센터 등 기업과 주택에 총 440만 개 설치 예정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 타슈켄트 사무소 등.

- 우즈베키스탄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우즈베키스탄 발전소의 대부분은 1960~70년대 구소련 시절에 건설되어 노후화로 인한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등 에너지 효율이 크게 낮음.
- * 우즈베키스탄에는 총 43개의 발전소(화력발전소 12개, 수력발전소 31개)가 있으며 국내 전력의 98% 이상을 우즈베크에네르코에서 생산
- 우즈베크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86%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현대화 프로젝트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, 수력발전 부문의 현대화 프로젝트는 검토 단계에 있음.
- 총 14개의 수력발전소 건설 및 현대화 프로젝트가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가 대기 오염 감축 및 전력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한 수자원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수력발전 부문의 전망이 밝은 편임.

나. 철도, 물류망, 상하수도 등 인프라 산업

□ 우즈베크 정부 인프라 개선 5개년 계획 발표

<표 2> 상하수도 현대화 관련 주요 프로젝트 내역

프로젝트명	내용
타슈켄트 농촌지역 취수시설 재건	- 중국 수출입은행의 차관으로 2011년까지 진행 예정 - 농촌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취수시설 재건 및 수도관 설치에 각각 2,690만 달러, 3,500만 달러 투입
수르한다리아(Surkhandarya) 상수도 및 위생시설 개선	- ADB 3천만 달러, 우즈베크 정부 800만 달러 투자 예정 - 2014년 완료 예정 - 자르쿠르간스크, 사리아시스크, 콤쿠르간스크 지역 총 27개 거주지의 상수도 개선 예상
테르메즈(Termez) 하수도 시스템 복원	- ADB 1,800만 달러 투자예정 - 기존 상하수도 개선 및 신규 간선 상수도 및 하수도 건설
시르다르야(Syrdarya) 상하수도 개선	- World Bank 8,800만 달러 지원예정 - 시르다르야 지역 거주자 약 34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

자료: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부(Ministry for foreign economic relations).

- 정부가 발표한 2010년 12월 21일자 대통령 결의안에 따르면, 2011~15년 중 총 69억 달러를 투자하여 도로, 철도, 항공운송 등 물류망 개선 및 상하수도 등 인프라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.
- 도로 및 교통 시스템 개선에 약 34억 달러, 철도망 개선에 약 16억 달러, 항공부문 개선에 약 6억 달러, 기타 통신망 및 상하수도 개선 등에 13억 달러를 각각 투자할 예정임.
- * 소요자금은 정부 예산을 비롯하여 아시아개발은행(ADB), 이슬람개발은행(IDB), 중국수출입은행 등의 차관 및 대출 등을 통하여 조달할 계획
- 또한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 1월 1일까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설비, 원자재, 부품, 설계문서 및 부대용품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수입관세를 면제하기로 함.

□ 중앙아시아 물류중심지로의 발전계획 추진

- 정부의 도로, 철도 등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산업현대화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됨.
- 우즈베키스탄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, 도로, 철도 등 인프라 시설이 주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물류거점 국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음.
- 2010년 중 타슈켄트에 위치한 앙그렌(Angren) 국제물류센터를 통해 총 400억 톤의 화물이 운송되었으며,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 전체의 화물운송량을 2020년까지 600억 톤 수준으로 증대시킬 계획임.

다. 금융 산업

□ 국제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금융시장 선진화 계획 추진

- 정부는 2010년 11월 26일 금융부문 선진화 관련 대통령령에 따라, 2011~15년 5개년에 걸쳐 금융시장 선진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음.

- 주요 정책방향은 은행의 자본증대와 민간자본 유치, 자산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바젤(Basel)위원회의 국제표준에 부합토록 금융환경을 개선하는 것임.
- 또한, 상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, 금융부문 우수인력 양성, 증권시장 현대화 등의 계획도 포함하고 있음.

<표 3> 금융산업 선진화계획 주요 내용

구분	내용
은행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용카드 보급률 증대 - 국제금융기구와 외국정부의 기업우대대출 및 무상지원 유치규모 확대(5년간 5.6억 달러 유치) - 인터넷뱅킹 서비스 확대 - 프라이빗뱅킹(private banking) 관련 법률, 신용정보 교환에 관한 법률, 저당 등록에 관한 법률 등 제정 - 2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별도절차 마련
비은행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 규모 제고(일반보험: 150만 유로, 의무보험: 300만 유로, 재보험: 600만 유로) - 상품거래에 관한 법률, 투자 및 뮤추얼 펀드에 관한 법률 등 제정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 타슈켄트 사무소

3. 산업현대화 계획의 외국기업 참여현황

□ 금융지원, 설비 공급 등 다양한 형식의 참여 활발

-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개년 산업현대화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며, 이미 스페인, 일본, 중국 등의 국가들은 자금지원, 건설설비 공급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.
- 정부는 전력산업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해 일본국제협력단(JICA), 이슬람개발은행(IDB), 중국수출입은행 등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으며 스페인, 터키 등 외국 기업들의 산업현대화 프로젝트 참여가 이어지고 있음.
-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한진그룹이 우즈베키스탄 나보이국제공항의 시설현대화

및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구축, 배후 복합단지 건설 등에 참여하고 있음.

4.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진출 시사점

□ 물류중심지로서 활용가능성 증대

- 도로 및 철도 건설, 항공운송분야 개선 등 물류산업 인프라 현대화로 우즈베키스탄의 물류·운송 여건이 개선될 것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은 우즈베키스탄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참여 가능함.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나보이 지역을 자유산업경제지구(FIEZ)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 유입 증대를 유도하고 있으며, 나보이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물류 부문 강화 및 중앙아시아 최대 물류기지 건설을 계획함.
- 우즈베키스탄은 내륙국가로서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, 타지키스탄 등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제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어, 물류중심지로서의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□ 전력부문 투자진출 유인 증가

- 우즈베키스탄의 전력부문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으로 외국 기업들의 전력부문 투자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, 우리 기업도 발전소 건설, 설계, 엔지니어링 등 분야의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해 수력발전 활용도 제고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화력발전 부문뿐만 아니라 수력발전소 현대화 및 신규건설 투자전망도 밝은 것으로 분석됨.

조사역 최 희 정(☎ 02-3779-5711)
E-mail: heej_choi@koreaexim.go.kr